

· 프로포즈 ‘ - 3344 여성 맞춤형도집회 홍보영상 글

꽃밭에 앉아서 꽃잎을 보네  
고운 빛은 어디에서 왔을까  
아름다운 꽃이여, 꽃이여~  
이렇게 좋은 날에, 이렇게 좋은 날에  
내 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 
꽃밭에 앉아서 꽃잎을 보네  
고운 빛은 어디에서 왔을까  
아름다운 꽃송이~  
오랫동안 그녀를 지켜보던 그 분이,  
노래를 부르시며 그녀에게 손을 건네셨습니다.  
그리고, 떨리는 가슴으로 그녀에게  
‘프로포즈’하셨습니다.  
“내가 너를 사랑해도 되겠느냐?  
네 안으로 들어가도 되겠느냐?”  
그녀는 오래 전 설레는 가슴으로 받았던 ‘프로포즈’를 떠올리며  
“곧 변해버릴 고백일 뿐이야”라며  
그 분의 ‘프로포즈’에 냉담하게 반응했습니다.

하지만, 그녀의 외면에도  
그 분은 여전히 손을 내밀고 계셨습니다.  
그녀에게 건넨 그 분의 손은 너무나 따뜻했습니다.  
그녀는 그 분의 손을 붙잡고 물었습니다.  
“당신은 정말 나를 영원히 사랑할 수 있나요,  
날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나요?”  
“나는 너를 배신하지도, 버리지도 않는다.  
네가 어떤 삶을 살았어도 너는 나의 영원한 꽃이다”라며  
그분은 그녀의 움추린 어깨를 감싸 안아주셨습니다.  
그 분의 품에 안긴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.  
지난 세월 외로움과 아픔 속에서 흘렸던 눈물이 아닌,  
“나는 당신의 영원한 꽃이 될 것입니다”라는  
고백의 눈물이었습니다.  
그녀는 그 분의 손을 잡고  
희망의 노래를 함께 부르며  
행복의 문을 향해 한 발짝 내딛었습니다.